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주님을 의심하는 토마 사도

부활 후 제2주일 / 토마 주일

성 게오르기오스 대순교자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토스 성찬예배에서

- ‘오늘 구원이’ 대신 ‘토마 주일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74
- 제1, 2, 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모두 다 모여’ / 부활절 예식서 38
- 성 토마 사도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74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12, 1-11 / 봉독서 62
- 복음경 : 요한 20, 19-31 / 97, B 14
- 성모송, 영성체송은 부활절 기간과 같음.
- ‘우리가 참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로마-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자 세계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가 온 교회에 보내는 부활절 메시지
영광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와 자비를 바라며,

부활하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이 말씀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님만이 홀로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 한 가운데서 십자가와 슬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신성한 정원, 부활의 정원, 죽음과 세상의 모든 부패를 녹여버리며 “생명이 해방되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콘스탄티노플의 세계총대주교청에서,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도 소리 높여 외칩니

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어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주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어야 할 골고타 언덕의 끔찍한 십자가 희생에 대해, 또한 장차 세상에 나아가 일하게 될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슬픔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도 근심도 싸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

☞ 2면으로 계속

☞ 1면에서 계속

에는 너희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면 그 기쁨은 아마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요한 16,20-22)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향유 가진 여인들은 세상을 위한 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했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평안하냐?”(마태오 28,9)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어머니 교회도 이와 똑같은 기쁨을 경험하면서 오늘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날은 주께서 내신 날,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시편 118,24) 철천지원수도, 죽음도, 슬픔도, 난관도, 부패도, 고통도, 시련도 참하느님 참인간이신 승리자 주 예수님께 패하여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테러, 국지적 전쟁, 환경 파괴, 종교적 극단주의, 기근과 난민 문제, 불치의 질병들, 극심한 가난, 정신적 불안과 억압, 안전 불감증 등 결코 바라지 않는 나쁜 소식들을 매일 전해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이 ‘십자가들’을 짊어지고 ‘신음’을 토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거룩한 정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려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을 가져오시는 분, 그 모든 것의 승리자, 만물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확실성 위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선이 승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승리를 거두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요한복서 6,2 참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세상,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요 기쁨이며 평화이십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일의 십자가와 슬픔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생동합니다. 이 지상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누립니다. 정교회의 중심, 순교의 상흔을 지닌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우리는 ‘찬란하게 빛나는 밤’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매일의 십자가와 슬픔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시련은 결국 한계와 끝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요한 14,18)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오 28,20)라고 말씀해주심으로써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명심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동반자로 삼아야 합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그분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합니다.

세계총대주교청에서 우리는, 생명이 죽음을 이겼고, 부활의 밝은 촛불이 어둠의 혼란을 이겼으며, 부활의 빛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물리쳤다는 메시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고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생명의 신비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 기쁨과 환희의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지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무한한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거룩한 부활 대축일에
✙ 콘스탄티노플의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성 미삭 시리아인 VI 겸손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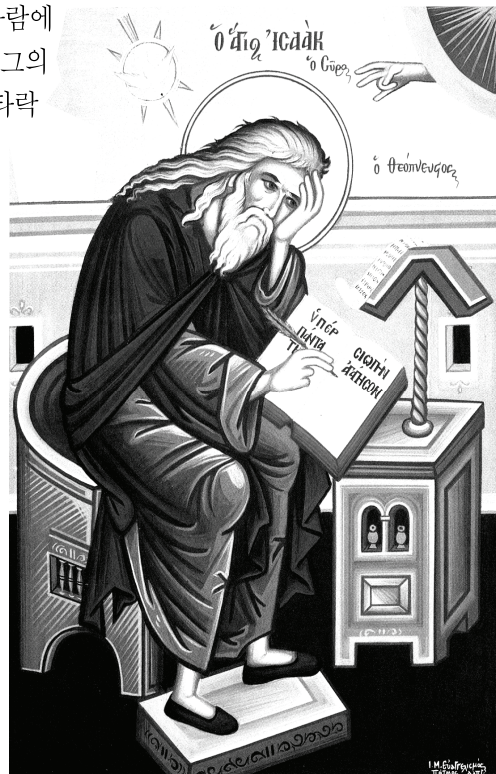
어느 누구도 겸손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말로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경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이에게 소중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를 아끼고 소중히 간직한다. 그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를 빛의 천사인 양 바라보고, 영예를 부여한다.

학식이 많은 사람은 멋진 말을 하겠지만, 도리어 사람들의 눈은 겸손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려고 그의 입술만을 바라본다. 모든 사람이 마치 하느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의 말을 기다린다.

겸손한 사람은 야생 동물에게도 다가가며, 동물은 그를 바라보는 순간 잔인함과 공포함이 마치 길들여진 애완 동물처럼 순화된다. 야생 동물은 자기 주인에게 그렇듯이 겸손한 사람에게 와서 안기며, 꼬리를 흔들고 그의 손과 발을 핥는다. 야생 동물은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서 나던 것과 똑같은 향기가 마치 겸손한 사람에게서 나는 것처럼 그 냄새를 맡는다. 이 향기는 (조상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향기를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다.

심지어는 악마들조차도 겸손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들의 악의(惡意)와 독기(毒氣), 사나움과 험악함을 모든 교만함과 함께 저버리고는 그저 먼지처럼 되고 만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한 부활절 연합예배 참여

지난 4월 16일 부활 주일에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께서는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부활절 사랑의 대만과를 마치시고, 사랑의 오찬을 나누고 바로 안산 세월호 분향소가 있는 화랑 유원지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준비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416참사세월호가족협의회'가 준비한 부활절연합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약 2,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여 세월호 사건 3주기를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에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께서는 마지막에 세월호 참사로 안식한 학생들과 희생된 이들의 영혼의 안식을 간구하는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 니콜라오스 갈릴레오스 신부 출국

지난 3월 16일 한국에 오셔서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에서 대사순절 기간과 성 대주간 그리고 부활절 예배까지 도움을 주시면서 울산의 신자들에게 좋은 영적 모본을 보여 주신 니콜라오스 갈릴레오스 신부께서 지난 4월 18일 그리스로 출국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부활절 예배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올해도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토요일 밤 부활절 예배에도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여 지지 않는 주님의 부활의 빛을 받았고, 부활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밤 예배가 끝나고 간단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 오전에는 사랑의 대만과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대만과 때는 소티리오스 대주교께서 오셔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로만 사제, 안토니오스 임 사제, 요한 보제와 함께 예배를 집전하였습니다. 또한 15개국 언어로 복음경 말씀이 봉독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사랑의 오찬이 준비가 되어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었고, 곧이어 사물놀이 공연과 슬라브어를 사용하는 신자들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성 대주간 및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간 예식

■ 4월 25일(화) 성 마르코 복음사도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